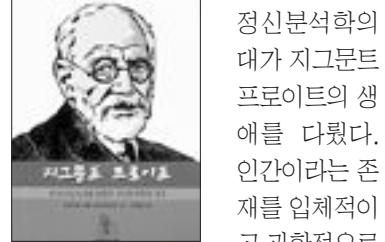


어린이 책꽂이

▲등뼈 없는 동물=1학년에서 6학년까지 초등과 학 교과단원에서 핵심 주제 50개를 뽑아 6대 영역으로 세분화 한 과학전문 학습만화, 해면동물과 강장동물, 편형동물, 연체동물 등 등뼈 없는 동물의 정보가 상세하게 소개돼 있다.

(스쿨김영사·9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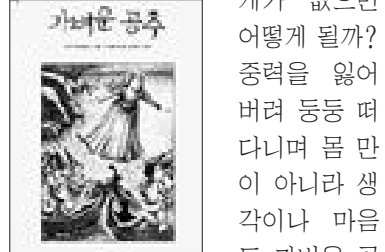
▲지그문트 프로이트=무의식의 세계를 탐험한 정신분석학의 대가 지그문트 프로이트의 생애를 다룬다.



인간이라는 존재를 입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해 인간의 내면세계를 증명한 정신분석학이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설명돼 있다.

(다섯수레·9천원)

▲가벼운 공주=만약 우리 몸이 무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 중력을 잃어버려 동동 떠다니며 몸만 아니라 생각이나 마음도 가벼운 공주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을 다루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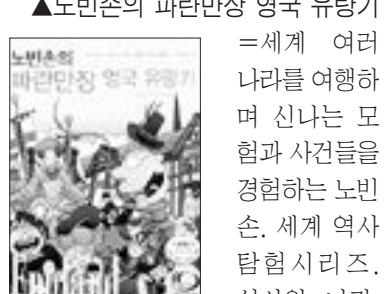
(문학과 지성사·7천500원)

▲만화 English 타파=중학 교과서의 핵심내용을 미리 보고 공부하는 만화 선행학습서. 없앨 위기에 처한 세움중학교 야구부는 살아 남기 위해 특단의 대책으로 영어배우기에 돌입한다.



(아이세움·9천500원)

▲노빈슨의 파란만장 영국 유랑기=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신나는 모험과 사건들을 경험하는 노빈슨. 세계 역사 탐험 시리즈. 신사의 나라, 여왕의 나라 등 별명도 많은 영국의 역사와 문화를 만날 수 있다.



(뜨인돌·9천500원)

무능함의 역사 美 CIA '은폐된 진실'

젯더미의 유산 팀 와이너 지음



CIA(미국 중앙정보국·Central Intelligence Agency). 미국 영화에 단골로 등장하는 CIA는 국가 정보기관의 대명사이다.

저자는 현재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 혼돈의 한 원인으로 CIA의 북한에 대한 무지와 잘못된 정보 분석을 꼽는다. 워싱턴의 수많은 북한 문제 전문가 중 북한에 가본 적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북한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서는 접근 통로조차 없다는 것.

저자는 "21세기에 들어서서 미국은 정보부채 상태에 놓이다 보니 일관된 해외 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은 (서울에서 CIA 지부장으로서 그리고 주한대사로 근무한 바 있는 노벨그레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단지 '어떤 태도'만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고 언급한다

한반도 관련 사안 이외에도 세계 도처에서 행해졌던 무수한 실책 사례가 제시된다. 중미의 콘트라 반군 지원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란의 혁명수비대에 무기를 팔았고 소련에 대항하기 위해 아프가니스탄 반군에게 무기를 지원했던 CIA의 행동들, 그리고 가장 최근 사례로 이라크에 대량파괴무기(WMD)가 있다는 CIA의 거짓 보고서 등.. 결국, 이러한 실책이 현재 미국 정보 분야에서 CIA가 이유 조직으로 밀려 나가게 된 원인이 되었다고 저자는 분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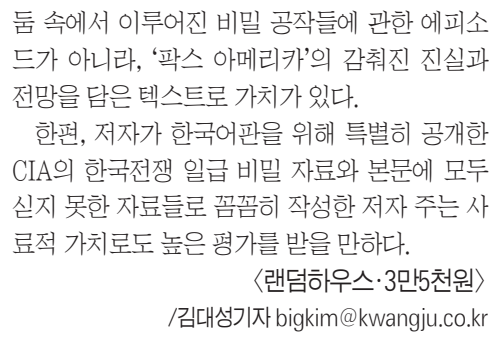
이 책은 '역사는 어둠속에서 만들어진다'는 진부한 사실을 밝히는 데 그치지 않는다. 최신 첩보위성과 감청 장치 그리고 수천명의 정보 분석 전문가와 비밀 공작원을 두고 '왜 미국은 세계의 변화에 대처하지 못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 때문에 어

둠 속에서 이루어진 비밀 공작들에 관한 에피소드가 아니라, '팩스 아메리카'의 감춰진 진실과 전망을 담은 텍스트로 가치가 있다.

한편, 저자가 한국어판을 위해 특별히 공개한 CIA의 한국전쟁 일급 비밀 자료와 본문에 모두 실지 못한 자료들로 꼼꼼히 작성한 저자 주는 사료적 가치로도 높은 평가를 받을 만하다.

(랜덤하우스·3만5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영화 '007-카지노의 로얄'의 한장면

작가와 함께하는 책 읽기

토드 스트라세 '파도'

2차 대전의 비극을 생각할 때, 영화의 화면인지 다큐멘터리의 기록 필름인지 분명하게 기억할 수는 없지만, 선명하게 떠오르는 흑백 영상의 한 장면이 있다.

서치라이트가 켜지고 히틀러가 들어서면 광장에 모여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들고 날뛰며 환호하는 광경이다. 마치 사이버 종교의 교주를 향한 관신도들의 처절한 몸부림처럼. 이런 맹목적인 집단 광기에 휩싸인 허약한 인간 군상들에게 교훈을 주는 청소년 소설이 있다.

토드 스트라세의 '파도'는 실제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소설화한 것이다. 역사 선생님인 벤 로스는 수업시간에 히틀러와 나치당에 대한 영상을 학생들에게 보여준다.

학생들 중에는 지나간 일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점심시간에 밥을 먹지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는다.

충격을 받은 학생들은 묻는다. '나치당의 유대인 탄압에 왜 대다수의 독일 국민들은 침묵했을까?' '또 수많은 사람들이 히틀러의

진정한 교육이란?



광기에 휩쓸리며 동조했을까?'라고. 이 질문에 적절한 답을 찾지 못한 선생님은 학생들과 함께 파시즘에 대한 실험을 시도하게 된다.

'파도'공동체를 결성하고 상징물을 만들고, 구호를 외치게 한다. 특히 반에서 소외당했던 학생들이 '파도'일에 누구보다 적극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한다. '파도' 회원들은 자신들만 특권을 누릴 수 있는

다는 듯이 '파도' 회원들의 회원 가입을 종용하고, 가입을 거부할 시에는 폭력까지 행사한다. 결국 '파도' 공동체에 문제가 발생하고, 벤 로스 선생님은 지도자를 원하는 학생들에게 정면으로 대응한다. 그들이 원하는 절대적인 지도자는 히틀러와 같은 독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필름을 통해 보여주면서 실험은 종료된다.

벤 로스 선생님은 실험을 끝내면서 스스로 깊은 깨달음을 얻는다. 한 개인이 주체적 자아를 형성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군가의 명령을 따르게 된다면, 그와 같은 개인들이 만드는 공동체의 비극의 역사는 독일에서건 미국에서건 되풀이될 것이라는.

그러므로 그 비극의 역사가 주는 교훈, 다시 말해서 교실을 배경으로 한 '파도'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바로 교육의 중요성이다. 주체적 개인을 형성하기 위한 교육이야말로 이와 같은 집단적 광기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떤가? 주체적 자아 형성의 길을 찾게 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르게 하기보다는 암기식 위주의 교육에, 성적 공개 등 경쟁만을 부추기고 있다. 이런 교육은 개성과 자아를 발전시켜 주체적인 개인으로 성장하게 만들기보다는 획일성에 함몰된 획일적인 기능인만을 양산하게 된다.

'파도'는 비판적 사고를 가진 주체적 개인이야말로 차이를 인정하고 차별을 극복하여 진정한 평등과 자유의 세계를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이 바로 질문을 읽고 경쟁만 있는 우리의 교실, 그 속에 갇혀있는 청소년들에게 '파도'가 던지는 절실한 교훈이다.

김순아(2008 광주일보신문에 동화당선자)



로마제국을 일궈낸 첫 황제의 삶

아우구스투스 앤서니 에버렛 지음



로마 제국을 일궈낸 로마 최초의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삶을 담은 전기 '아우구스투스'가 출간됐다.

영국 노팅엄대 객원교수로 '키케로'를 집필한 바 있는 앤서니 에버렛이 쓴 '아우구스투스'는 초라한 시골 소년이었다가 어떻게 혼란에 빠진 공화국을 세계 최고의 전제국가로 만들었는지 삶의 궤적을 재구성한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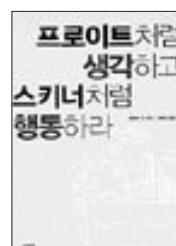
저자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들어간 아우구스투스는 위기 때마다 신경성 질환으로 앓아 눕는 병약한 청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총명과 끈기를 바탕으로 로마를 재건하는 데 성공한 야심적 인물이었다고 묘사했다.

책은 또 혼돈의 시대를 지나 유럽 역사상 가장 화려했던 로마 제국의 탄생까지 가장 중요한 정점에 있었던 아우구스투스 당시의 로마 사회의 관습과 정치에 대해 또 하나의 읽을 거리를 제공한다. (다른 세상·2만 2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자기계발서

프로이트 처럼... 제러미 딘 지음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심리학 분야 전문 글쓰기 작가로 활동중인 제러미 딘이 심리학을 바탕으로 한 자기계발서 '프로이트처럼 생각하고 스키너처럼 행동하라'를 펴냈다.

유명한 '스탠포드 교도소 실험' 등 심리학 분야 유명 잡지에 실린 다양한 심리학 연구를 바탕으로 한 이 책은 인간의 본성과 관련한 다채로운 해석을 통해 평범한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위축되기 쉬운 사례를 소개하고 삶의 지혜를 제시했다.

저자는 '견방증을 슬퍼하지 마라, 거기에선 선견지명이 담겨 있다', '우리 모두 편향의 덩어리다. 그 때문에 자신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일조차 어렵다', '우리 모두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미리 설계는 차라리 하지 마라' 등 자신만의 문제제기와 생각했던 것들이 모두의 문제임을 던지시 알려주며 즐거운 인생을 꿈꾸라고 말한다. (부글 북스·1만 3천원)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웰빙시대 최고의 유망자격증
우리농산물 지킴이 농산물품질관리사
현재 상담 접수중 - 주말반-
국가공인 5회시험
수강료 국가 지원
자격취득자 100%전원 취업완료!!
전남고시학원 전남여고건너편
(062)236-2468

7.9 급 공무원 합격 강좌
=전통47년! 전국 최다 합격자 배출, 명교수진의 환상의 강좌(직접확인요)=
강좌 기초특강·행교세관법검철교보보복군소기전
'09년 시험은 지금부터 개강
합격 회원 모집
무등고시학원
www.mdgosi.co.kr 222-4560

유네스코 인정 정규 대학교
SCU한의대
한의대 유학! 국내에서 가능!
캐나다, 미국 한의사가 될수있습니다!
www.scukorea.com
문의전화 010-6834-6253
취업 고민해결! 아메리카대륙에서 성공을!
입학상담/설명회 매일 오후 3시, 4시

새로운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시험 전국최다합격자 배출
전국 최강 교수진 서울에서 출강! 저자직강! TV강의 교수진!
2009년도 시험대비반
새로운 행정고시학원
사무점 ☎361-8111
특수점 ☎268-8111